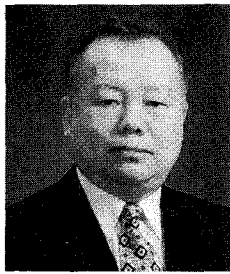


# '98년 낙농산업 이렇게 진단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 남 용

## 1. 머릿말

98년도의 낙농산업을 진단하고 전망한다는 것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이롭게 되었다. 불경기에 따라 축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소값은 수매로 인하여 겨우 값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며 원유값은 정부고시가격에 낙농가 수가 감소하고 또 젖소 수까지 감소하고 있어 우유성

수기에는 부족현상까지 일고 있어 원유 값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국제통화기금(IMF) 바람이 불고 환율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를 비롯한 제반 자재값 그리고 기름값의 인상등 여건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어 98년도의 전망을 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진단하기도 어렵다. 70년대 유류파동의 여파로 어려움을 당하였던 그 당시보다도 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파고가 없을 당시는 3개월에 1천

호의 낙농가들이 폐업을 하였었는데 폐업이 가속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98년도 1년간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존계를 가름하게 될 것만은 예견된다. 현재 1만 7천호의 낙농가가 98년도 1년간에 어느정도 남아있느냐는 것이 관심사다. 신규로 낙농업에 뛰어드는 낙농가는 거의 없고 폐업농가만이 속출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의 한파의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8년도의 한해는 전망을 예측할 수 없도록 여건이 나쁜 해가 됨은 틀림없다.

## 2. 낙농현황

낙농가 호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97년

은 3개월에 약 1천호씩 감소하였다. 두수도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농가 호수가 제일 많은 때가 85년 4만 3천 760호였던 것이 97년말 1만7천호로 감소하였다. 젖소 두수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95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55만 3천두를 최고 두수로 하고 약간씩 오르내리다가 97년말 55만 1천두로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까지 젖소 70만두로 증식시켜 우유자급도를 70%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현 두수를 유지하는 것도 힘에 겨운 것 같다. 98년도는 국제통과기금, 그리고 환율파고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수 감소에 비례하여 젖소 두수까지 감소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구 분		'91	'95(A)	'96(B)	'97.9(C)	순 증 감	
						C/A	C/B
농 가 수	전 체	30천호	22	21	18	△18.2%	△14.3
	30두이상 (점유비)	3.1 (10.3%)	6.0 (25.6)	7.1 (33.6)	7.9 (43.9)	31.7	11.3
	전체	496천두	553	552	551	△0.4	△0.2
두 수	30두이상 (점유비)	143 (28.9)	271 (48.9)	319 (57.9)	373 (67.7)	37.6	16.9
	착유두수	263	286.3	285.6	284.7	△0.6	△0.3
호당사육두수		16두	24	26	30	25.0	15.4

자료 : 농림부

젖소값은 96년 10월까지의 완만한 하향세였

으나 12월들어서면서 급격히 하락하여 97년에

들어서면서 하락세가 절정에 이르렀다. 정부에서 확인한 인하쪽은 한우가 22.6%인데 비하여 젓소 40.9%, 초임만삭 34.4%, 초유폐기 70.0%로 하락하여 낙농경영을 어렵게하고 있다. 소값이 이렇게 하락하자 정부에서는 한우는 500kg생체 수소가격이 240만원선에서 수매를 하여 한우값의 인하를 240만원선 묶어놓았으며 젓소가격 안정을 위하여 젓소 수소를 지육으로 수매에 들어갔다.

젓소 지육 2,700원/kg선으로 수매를 하는

한편 육우매장을 정부에서 1차적으로 23개소를 개소당 1~2억원씩 년리 5%로 용자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젓소 수소는 9천 150두 수매하였다. 만약 젓소 수소를 수매를 하지 않았다면 젓소의 값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젓소는 한우에 비하여 두수가 많지 않아서 한우수매 약8만 3천두 수매에 젓소 수소는 9천 150두에 그쳤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서 또 IMF 바람이 불면서 약간 값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소값 동향)

(단위 : 천원)

구 분	'95.12	'96.2 (A)	5월	12월	'97.3월	9월	10.10 (B)	B/A	
큰 소 ( $\geq$ 500kg)	한우	3,232	3,195	2,680	2,657	2,416	2,494	2,438	$\Delta$ 23.7%
	젓소	2,285	2,276	1,933	1,403	1,242	1,338	1,348	$\Delta$ 40.8
초임만삭(젓소)	3,057	3,009	2,880	2,092	1,870	1,926	1,916	$\Delta$ 36.3	
초유폐기(우,젓소)	879	846	788	364	284	259	260	$\Delta$ 69.3	

자료 : 농림부

우유수급에 있어서는 가공우유와 발효유 등은 대부분 모조분유를 원료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우유시장은 시유시장이 국내산 원유의 약70%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97년도의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통계가 나온다면 시유비율이 70%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원유량비 시유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국산원유로는 유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이다. 우리나라의 유제품시장은 수입품들이 장악하고 있다. 모조분유(혼합분유)는 월 약2천 5백톤씩 수입되어 과거 국내 전지 또는 탈지분유를 원료로 사용되던 제과제빵, 그리고 가공우유, 발효유(요구르트)의 원료로 사용되어 국내산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제쳐놓았다. 그러므로 국내산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는 시장에서 유통이 안되고 재고품들이 모조분유값인 kg당 2천 5백원으로부터 3천 8백원에 거래되

고 있어 정상가격의 절반값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분유를 제조하면 원유값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져 유업체, 특히 낙농관련 조합의 적자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낙농관련 조합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원유잉여시 제조하여 놓은 분유가 주 원인인 것이다.

치즈는 완제품이 수입되어 그대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산이라고 제조되어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가공치즈 역시 그 원료는 수입된 치즈가 대부분이다. 현재 치즈는 월간 1천여톤씩 수입되고 있다. 극히 일부의 피자치즈만이 국내산 원유로 제조되고 있는 정도다. 치즈시장은 낙농선진국이라는 국가 유제품의 소비가 절정에 도달하였다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국가에서도 소비가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년비 40% 이상씩 신장되는 시장인데 외국산에 점령당하고 말 것이다.

생크림의 시장도 급속히 신장되었다. 제과제빵점에서 생크림과는 인기를 더하여가고 있다. 케익에 생크림을 쓰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 생크림시장도 외제생크림이 점령하였다. 이 생크림도 월간 1천톤씩 수입되고 있다. 선물케익에 장식되어 있는 생크림은 국산이 아니고 수입품인 것이다.

버터조제품 또는 식용유 조제품의 원료는 80%가 버터오일 즉 버터다. 나머지가 식물성기름등이다. 이 조제품은 버터를 원료로 하던 제과제빵, 그리고 사탕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즉 가공원료로 국내산 버터는 시장을 이 버터조제품에 탈취당하였다. 이것은 월 1천여톤씩 수입되고 있다.

끝으로 코코아조제품이다. 이것도 코코아분말은 10~15%에 분유류가 90~85% 함유한 유제품이다. 이것은 수입되어서 가공우유인 초코렛 우유 원료로 사용되는 외에 초코렛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초코렛에는 분유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코코아조제품사용으로 국내산분유는 초코렛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외에 유광, 카제인, 유장분말들이 수입되고 있는데 카제인은 자유화품목이고 유당과 유장분말은 쿼타성격으로 물량이 정하여져 있는데 실제 사용량보다도 쿼타량이 많게 책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유제품시장은 수입유제품시장이 되었다. 현재 시유시장만은 아직은 외국산이 넘보지 못하고 있는데 가공우유는 모조분유로 만들고 있고 이 가공우유를 소비자들은 국내산 우유 100%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시유와 가공우유의 식별법을 홍보하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또 하나의 복병은 현재는 멸균우유의 유통기한은 7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을 98년도까지는 자유화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서 98년도 말까지는 자유화되었을시 멸균유가 수입 시판되었을 때, 또 백화점 등에서 할인 판매품목으로 제시되었을시 소비자들에게 파급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멸균유의 점유율이 극히 낮기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유제품수출협회를 이미 2년전에 설치 유업체인사들을 미국에 초청하여 견학을 시키고 국내에서도 유제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으로 자국의 유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미국군인을 비롯한 미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환원우유(분유 + 버터 오일 + 꿀)를 제조하여 먹던 것을 96년 후반기

부터 자국에서 생산된 것을 직접 수송하여 먹고 있으므로 그 우유가 국내시장에 나올 수도 있어 언젠고 안심이 안되는 상태다.

'97 1-8 유제품 수입실적

(단위 : kg, US\$)

품목	수입량	'97 1-8		'96 1-8		대비(%)	
		중량(A)	금액(B)	중량(A)	금액(B)	A/A	B/B
우유	당월	0	0	0	0	-	-
0401.20.0000	누계	0	0	380,820	257,721	0.0%	0.0%
크림	당월	1,243,350	1,353,352	480,625	673,166	258.7%	201.0%
0401.30	누계	5,098,970	5,669,227	4,572,975	6,635,149	111.5%	85.4%
탈지분유	당월	185,009	397,252	78,750	165,696	234.9%	239.7%
0402.10.1010	누계	732,812	1,515,629	567,750	1,268,430	129.1%	119.5%
전지분유	당월	12,000	23,112	29,500	66,647	40.7%	34.7%
0402.21.1000	누계	77,516	165,734	139,000	340,561	55.8%	48.7%
유장	당월	1,839,567	1,962,712	1,287,830	1,063,934	142.8%	184.5%
0404.10	누계	13,718,550	12,590,984	12,800,774	10,328,274	107.2%	118.5%
모조분유	당월	1,999,550	4,026,046	2,632,440	6,443,308	76.0%	62.5%
0404.90.0000	누계	10,877,592	23,267,885	17,146,016	42,658,730	63.4%	54.5%
버터	당월	87,145	157,781	13,069	34,575	666.8%	456.3%
0405.10.0000	누계	782,041	1,523,977	372,282	1,053,368	210.1%	144.7%
치이즈	당월	1,748,405	5,214,247	1,256,997	4,362,557	139.1%	119.5%
0406	누계	12,211,580	38,336,841	9,470,498	31,682,320	128.9%	121.0%
유당	당월	929,022	738,845	1,034,370	815,361	89.8%	90.6%
1702.11(19)	누계	6,624,635	5,320,659	5,868,546	4,272,922	112.9%	124.5%
카제인	당월	480,850	2,433,283	578,435	3,606,709	83.1%	67.5%
3501	누계	385,561	20,413,625	3,832,927	23,809,465	100.6%	85.7%
요구르트	당월	48,986	107,684	72,495	216,194	67.6%	49.8%
0403.10	누계	357,992	882,937	336,537	925,961	106.4%	95.4%
아이스크림	당월	298,056	820,822	251,845	490,317	118.3%	167.4%
2105.00.1010 (1090)	누계	2,700,929	8,205,849	904,606	1,900,884	298.6%	431.7%
합계	당월	8,871,940	17,235,136	7,716,356	17,938,464	115.0%	96.1%
	누계	57,038,178	117,893,347	56,392,731	25,435,785	101.1%	94.0%

자료 : 무역통계월보(관세청, 관세연구소)

'97 1-8 코코아 및 우유조제품 수입실적

〈코코아 조제품〉

(단위 : kg, US\$)

품목	수입량	'97 1-8		'96 1-8		대비 (%)	
		중량(A)	금액(B)	중량(A)	금액(B)	A/A	B/B
1806.20.9010	당월	721,986	1,670,500	577,978	1,550,252	124.9%	107.8%
	누계	5,393,951	13,359,592	4,399,845	12,091,445	122.6%	110.5%
1806.20.9090	당월	144,261	324,156	108,000	239,676	133.6%	135.2%
	누계	836,031	1,727,805	381,493	906,515	219.1%	190.6%
1806.90.9010	당월	205,100	385,785	341,109	934,322	60.1%	41.3%
	누계	2,063,795	4,680,121	3,249,585	8,798,416	63.5%	53.2%
1806.90.9090	당월	43,354	82,215	108,354	173,165	40.0%	47.5%
	누계	778,964	1,478,352	793,563	1,556,654	98.2%	95.0%
합계	당월	1,114,701	2,462,656	1,135,441	2,897,415	98.2%	85.0%
	누계	9,072,741	21,245,870	8,824,486	23,353,030	102.8%	91.0%

〈우유조제품〉

품목	수입량	'97 1-8		'96 1-8		대비 (%)	
		중량(A)	금액(B)	중량(A)	금액(B)	A/A	B/B
1901.10.1010	당월	0	0	0	0	-	-
	누계	339,514	1,094,626	3,289	44,472	10,322.7%	2,461.4%
1901.10.1090	당월	0	0	0	0	-	-
	누계	167,181	539,632	0	0	-	-
1901.90.2000	당월	455,570	849,492	825,244	2,073,622	55.2%	41.0%
	누계	4,059,162	8,892,539	4,993,651	12,361,558	81.3%	71.9%
합계	당월	455,570	849,492	825,244	2,073,622	55.2%	41.0%
	누계	4,565,857	10,526,797	4,996,940	12,406,030	91.4%	84.9%

자료 : 무역통계월보(관세청, 관세연구소)

'97 1-8 버터 조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수입실적

(단위 : kg, US\$)

품목	수입량	'97 1-8		'96 1-8		대비 (%)	
		중량(A)	금액(B)	중량(A)	금액(B)	A/A	B/B
버터를 기재로한 조제품 2106.90.9020	당월	1,099,500	2,077,389	1,145,577	2,625,471	96.0%	79.1%
	누계	7,907,457	15,317,631	8,332,482	20,283,035	94.9%	75.5%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2106.90.9030	당월	18,082	56,562	23,162	85,499	78.1%	66.2%
	누계	49,786	227,860	73,050	297,087	68.2%	76.7%
합계	당월	1,117,582	2,133,951	1,168,739	2,710,970	95.6%	78.7%
	누계	7,957,243	15,545,491	8,405,532	20,580,122	94.7%	75.5%

자료 : 무역통계월보(관세청, 관세연구소)

## 유대 단가 조건표

(97. 3. 1일 시행)

(금액 : 원/kg)

### 1. 유질등급 구분 및 등급별 금액

구분 지방률(%)	세 균 수 등 급				
	1급A	1급B	2급	3급	4급
5.0	642	631	607	599	559
4.9	631	620	596	588	548
4.8	620	609	585	577	537
4.7	609	598	574	566	526
4.6	598	587	563	555	515
4.5	587	576	552	544	504
4.4	576	565	541	533	493
4.3	565	554	530	522	482
4.2	554	543	519	511	471
4.1	543	532	508	500	460
4.0	532	521	497	489	449
3.9	521	510	486	478	438
3.8	510	499	475	467	427
3.7	499	488	464	456	416
3.6	488	477	453	445	405
3.5	477	466	442	434	394
3.4	466	455	431	423	383
3.3	455	444	420	412	372
3.2	444	433	409	401	361
3.1	433	422	398	390	350
3.0	422	411	387	379	339

<세균수>

등급	세균수/ml	지방률 3.7%기준	차등액 (원)
1급A	3만미만	499원	
1급B	3만미만~10만 미만	488	>11
2급	10만~25만 미만	464	>24
3급	25만~50만 이하	456	> 8
4급	50만 초과	416	>40

<체세포수>

등급	체세포수/ml	가감액(원)	비고
1급	20만미만	+30	
2급	20만~50만 이하	0	
3급	50만 초과	-30	

### 2. 유대 단가 계산 실례

지방률	세균수	체세포수	금액(원)/kg
3.7% 기준	1급A	1급	529
		2급	499
		3급	469
	1급B	1급	518
		2급	488
		3급	458
	2급	1급	494
		2급	464
		3급	434
	3급	1급	486
		2급	456
		3급	426
4급	1급	446	
	2급	416	
	3급	386	

### 3. 기타 불이익조치사항

세 균 수	연속 3회 4급시 1일간 납유정지
-------	--------------------

원유값은 95년 10월에 조정된 후 조정이 되지 않았다. 그후에 체세포 세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많은 목장에서는 체세포 강하로 인하여 오히려 원유값이 인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간은 사료값의 인상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우유소비둔화로 재고가 많았던 관계로 인상을 자제하였으나 낙농가들의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97년 9월현재 원유값을 15%정도 인상하지 않으면 낙농산업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12월 9일 정보에 의하면 12월 10일부터 약10%선으로 배합사료값을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15% 인상요인에 추가로 5%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수입자유화 상태하에서의 원유값의 인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낙농가들이 계속 도산하고

있는 것을 묵과하고만 있을 수가 없다. 낙농가의 도산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므로 낙농가의 도산은 바로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도산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유생산량은 연간 약20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재고분유가 있기는 하나 국내산 원유는 더는 정제되지 않고 오히려 우유성수기에는 약간의 부족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유소비는 80년대와 같은 신장은 되지 않고 있으나 이제는 우유는 기호품 또는 건상식품 차원을 넘어서 식량차원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신장되고 있다. 과거 재고가 누적된 것은 우유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다는 악의성의 폭로기사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97 우유수급계획

구분	공 급				소 비		재 고 (A-B)	자 급 율
	이월	생산	수입	계(A)	(B)	1인당		
'96실적	천톤					kg		
	66	2,034	474 (146)	2,574 (2,246)	2,465 (2,137)	54.5 (47.2)	109	81 (93)
'97계획	109	2,072	443	2,624	2,574 (4.4%)	56.4	50	84

※ ① '96( )내는 수입 모조분유(유장이외기타·조제식료품)·연유실적 미포함  
 ② '97계획 전제 : 모조분유 수입 Quota량 20천톤



### 3. 9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축산물가공업부가 농림부로 환원 일원화된 다. 축산물가공업부가 85년까지는 농림부에 있었는데 가공업무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켰다.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시킬때 축산관련단체에서 많은 항의를 하였지만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에는 축산단체들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전문성이 없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에 저해작용을 하였으며 우리 축산인에게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다. 더욱 우리 낙농업계에는 많은 피해를 주었다. 소골에서 탄저병균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먹기를 주저케 하였고 고름우유파동이란 파동이 일었을 때도 진정 수습치 않고 방관하여 우유재고가 산적하였었고 소간에서 O-157균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소부산물 두당 가격이 30만원대였던 것이 10만원대로 폭락케 하였으면서도 소부산물소비를 위축케 하였다. 급기야는 우유에 발암물질 생식에 지장이 있는 성분이 우유호스를 통하여 우유에 오염되었다는 발표로 낙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였다. 이 모두가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축산물가공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림부에 있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시킨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 누구를 위한 이관이었던가. 국가를 위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위함이 결코 아니었

다. 그 축산물가공업부가 12년만에 농림부로 복귀하게 되었다. 98년 6월정부터는 농림부에서 축산물가공업무를 하게된다. 어렵고도 어렵게 농림부로 복귀되었다. 그간 유업체들은 농림부관할 밖에 있었으므로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반하는 일을 많이 하였었다. 국내산 우유가 한방울도 들어있지 않은 가공우유를 제조하여 소비자에게는 국내산우유 100%로 만든 우유인양 소비홍보를 하여 소비자에게도 또 국내 낙농산업에도 이롭게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낙농진흥법이 제정된지 30년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한지 10여년에 개정되었다. 낙농진흥법의 개정은 낙농계에 많은 변화를 이르게 된다. 첫째가 낙농진흥회란 낙농전문기관이 탄생한다. 또 집유가 다원화된 것을 집유일원화하게 된다. 또 검사도 정부기관에서 하도록 되었다. 즉 원유검사가 공영화된다.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일대 혁명적인 사항이다. 이 제도가 99년 1월부터 실행하게 됨으로 98년중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 낙농진흥법의 개정은 이미 되어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낙농관련단체, 그리고 일부 낙농가들의 반대로 적기를 노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낙농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이미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경합의 시대는 이미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 자유화로 사라지고 세계 여러나라의 낙농산업 낙농가들과의 경합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

의 사슬을 벗어야 한다. 이 사슬을 벗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낙농산업 그리고 낙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낙농진흥법의 개정이다. 그런데 적기에 개정이 되지 못하여 개정의 효과를 반감하였다. 그러나 늦게나마 개정된 것은 크게 다행한 일로 99년 실시를 위한 제반장치는 98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만 한다. 개혁적인 사업이다. 아집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 4. 예상되는 TMF(국제통화기금) 여파

국제통화기금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대란으로 몰았다. 어느 한곳도 희망찬 곳이 없다. 모든 보도기관에서는 IMF여파에 의한 기사로 장식되고 있다. 우리 낙농계의 기자재들은 사료를 위시하여 많은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연일 환율은 인상되고 있다. 350원대를 논하던 것은 저멀리 가고 이 기사를 쓰는 현재는 1,75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돈만 주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게 되어가고 있다. 사료원료의 곡물을 구입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배합사료가격이 10%선으로 인상되었으나 이것은 환율 1천원대로 계산이 된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환율은 1,700원대다.

앞으로 계속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어야 한

다는 결론에 이른다. 배합사료가격의 대폭적인 인상하에서 낙농산업이 지탱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큰 과제다. 현재도 3개월에 1천호의 낙농가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배합사료가격을 위시하여 수입조사료 등등이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낙농가가 그 얼마나 될지 크게 우려된다.

사료값 10%인상이 되었으므로 현재의 기준, 그것도 구입 조사료대등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원유값을 최소한 20%는 인상치 않으면 낙농가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유가격을 20% 인상하여 달라는 공문을 농림부에 발송하고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지금부터는 우유의 비수요기다. 그러나 비수요기를 따질 그런 여유조차 없다. 원유값이 인상조정되지 않으면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을에 낙엽지듯 폐업이 속출되어 국내 낙농기반이 붕괴될 것이 예상된다. 낙농가들의 경영미숙으로 오는 경영악화가 아니고 주의의 여건변화에서 오는 경영악화이므로 원유대 인상으로 전부 카바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또 원유값을 인상하면 소득보장에도 기여가 되겠지만 허탈해 있는 낙농가에게 허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원유대는 인상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비수요기로 인한 재고누적의 우려도 없지는 않으나 재고누적은 어떤형식으로든 참아나가야 한다. 재고누적은 일시적인 고통이지만 낙농가들의 폐업은 우리나라 낙농기반이 붕괴됨이다. 그러므로 원유값은 인상조정되어야 한

다. 돈을 주고도 낙농가들이 원하는 사료를, 그리고 조사료및 기타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농가들의 심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98년 들어서 배합사료가격이 추가하여 인상되고 환율이 1천원대 이하가 되어서 안정이 안 되었을 시 원유대 인상론이 재론됨은 당연 할 것이다. 우유를 비롯한 모든 유제품이 개방되었고 또 유제품시장은 이미 수입품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원유대를 계속 인상하여야 되느냐라는데 문제는 있다. 그러나 원유생산비의 50%선을 점하고 있는 사료가격이 대폭으로 인상되었을시 원유대를 인상조정치 않으면 낙농가들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일시적인 적자는 감수할 수 있지만 계속적인 적자일 때는 폐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통해 조정이 되겠지만 원유대를 인상치 않고는 안될 것으로 본다.

낙농가들도 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조사료 생산보다는 구입조사료값이 그리고 조사료값보다는 농후사료값이 었기였으므로 농후사료위주 그리고 구입조사료 위주의 경영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종전의 경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조사료생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배합사료보다는 조사료를 더 먹이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는 것에 따르는 경영방식도 새로워져야 한다. 물론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젖소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젖소의 개량등에도 현재까지 신경을 쓰지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야한다. 사료비가 비싼지대에는 많은 젖소를 기르기도는 능력이 좋은 젖소 위

주로 두 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너무나도 주위여건이 변화되어 이 변화를 극복하는데는 지혜와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

IMF의 여파로 주위가 뒤숭숭하다. 국민들이 다 불안을 느낀다. 따라서 축산물의 소비도 둔화되고 있다. 쇠고기 소비둔화는 소값으로 이어진다. 젖소값은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게 하고 우유도 비수요기인 겨울동안은 재고가 누적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유제품의 수입도 환율인상으로 지장을 받을 것이므로 국내산 우유의 소비가 더 증가할 수도 있어서 재고누적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IMF의 파고는 직간접으로 낙농업계에도 한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5. 맺 음 말

98년도의 한해는 낙농업계도 어렵고도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 배합사료값이 계속 올라서 낙농여건을 악화시키고 낙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다. 원유대가 인상조정될 것이지만 사료값 인상쪽만치 인상될 것이냐는 것도 큰 숙제가 되고 있다. 축산물가공업무가 후반기부터 농림부로 일원화된다. 이것도 낙농산업에는 플라스요인으로 작용이 된다. 낙농진흥법개정으로 오는 제도개선도 실시는 되지 않지만 후반기부터는 실행을 위한 예행에 들어가게 된다.

98년도의 낙농산업은 튕겨놓은 벌떼와 같이 어수선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해지만 소득은 없는 한해가 될 것이 우려되고 또 전망된다.